노관규 순천시장, 정원박람회 이후 도시 밑그림 그린다

파리·바르셀로나 등 유럽 선진지 견학…'르네상스 계획' 구체화
슈퍼블록 프로젝트·사람 중심 교통 살펴보며 원도심 활성화 구상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 참석…지속가능한 도시 발전 논의

노관규(왼쪽 세번째) 순천시장이 지난 8일 프랑스 아미앵시에서 열린 '2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석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순천시 제공〉

노관규 순천시장이 5박 7일 일정으로 스페인, 프랑스 등 유럽 도시를 찾아 202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이후 도심 활성화를 계획을 구체화했다.

순천시는 노 시장이 지난 6일부터 12일까지 5박 7일간 프랑스 파리, 아미앵시,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국외 선진지 견학에 나섰다고 밝혔다.

그는 바르셀로나의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슈퍼블록 프로젝트'를 살피고, 아미앵시에서 열린 '2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파리의 사람 중심 교통 정책을 들여다보며 순천시가 추진하고 있는 '대자보 (대중교통·자전거·보행) 도시' 계획의 밑그림을 그렸다.

첫 방문지는 '슈퍼블록 프로젝트'로 도시 공간을 획기적으로 혁신한 스페인 바르셀로나였다.

노 시장 일행은 7일 이곳을 찾아 6000명 거주 생활권역에서 차량 통행이 엄격히 제한된 도시 구성 체계인 '슈퍼블록'을 살폈다.

순천시는 원도심에 활기를 불어넣기 위한 '원도심 르네상스(부흥)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신축하고 있는 신청사를 시민 중심의 공공청사로 탈바꿈한다는 계획이다.

새로 조성되는 시민광장은 중앙시장과 에니메이션 클러스터, 옥천까지 원도심 구간을 연계해 문화·휴식의 중심지로 전환한다. 정원박람회의 핵심 공간인 오천그린광장으로 출발한 광장 문화를 도심 곳곳에 확산한다는 전략이다.

이날 순천시는 '슈퍼블록' 외에도 '22@재생혁신지구' 등을 둘러보며 시정 현안과 접목 방법을 찾았다.

노 시장은 이후 8~10일 프랑스 아미앵시에서 열린 '2회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에 참석했다.

람사르 습지도시 시장단 회의는 동아시아 람사르 지역센터와 아미앵시가 공동 주최했다. 지난 2019년 열린 첫 회의는 순천시에서 열렸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4년 만에 개최된 이번 회의에는 전 세계 10개국 24개 습지도시 시장단 200여 명이 참가했다.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 초대 의장을 맡은 노 시장은 회의를 주도하며 습지 보전을 위한 국제 연대를 강조하고 순천의 습지 정책을 소개했다.

순천의 습지 정책은 도심과 습지를 연결하면서 멸종위기종 생물 서식지를 복원하며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다.

24개 습지도시는 회의에서 습지 보전 정책과 도시 기반시설로 습지를 활용하는 사례 등을 공유하고 도시 간의 우호 교류를 다졌다. 우수한 습지도시의 습지 보전 정책을 장려하고, 습지 보전을 통한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도 논의했다. 지난 2019년 발족한 '습지도시 시장단 네트워크'는 습지도시들이 람사르협약 지정을 받는 것에서 한 발 더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담은 구성체이다.

람사르협약의 습지도시 인증제도는 2015년 12차 람사르협약 당사국총회에서 우리나라와 튀니지가 공동 발의해 결의문으로 채택됐다.

이후 협약에서 정한 심사를 거쳐 2018년 13차 람사르총회에서 순천을 포함한 7개국 18개 도시가 습지도시로 첫 인증을 받았고, 지난해 14차 총회에서 13개국 25개 도시가 추가 인증받았다.

이후 노 시장 일행은 '15분 도시'로 대표되는 파리를 이번 유럽 일정 중 마지막 도시로 방문했다. 10일, 11일 이틀간 샹젤리제 거리, 센강변 도로, 리볼리 거리, 레알 거리, 파리 플라주, 프롬나드 플랑테 등 소위 자동차보다 사람을 우선시한 도시 공간 혁신의 현장을 살펴봤다.

'15분 도시'는 시민 누구나 15분 이내에 걸어서 또는 자전거로 문화·의료·교육·복지·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춘 도시를 말한다.

2023정원박람회에서 자동차가 달리는 아스팔트 도로를 정원 '그린아일랜드'로 바꿔낸 순천시는 사람 중심의 새로운 도시를 꿈꾸고 있다. 순천시는 파리의 폐철도 부지를 활용해 공원으로 만든 '프롬나드 플랑테'와 고속도로를 도심 속 여름 휴양지로 만든 '파리 플라주' 등 사례를 통해 순천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접목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노 시장은 "자동차가 편한 곳은 상권이 살아나기 어렵다. 시내 중심으로 자동차가 편하게 다니는 도심은 죽을 수밖에 없다"며 "더 도심을 확장하지 않더라도 상권을 활성화하고 소비군을 끌어들여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순천을 만들어 가겠다. 박람회 이후 도시계획과 예산의 투입은 앞으로 변화가 필요한 곳에,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는 곳에 투입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kwangju.co.kr

광양지역 36개 기업·단체, 네 자녀 이상 가정 후원 결연

후원금 기탁식 7900만원 쾌척

광양시의 네 자녀 이상 가정과 지역 기업이 자매결연을 맺었다.

광양시는 최근 '네 자녀 이상 가정-기업·단체 간 자매결연' 후원금 기탁식〈사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광양지역 36개 기업은 네 자녀 이상 65가정과 자매결연을 맺고 7920만원을 후원금으로 기탁했다.

이 사업은 2021년 처음 시행돼 올해 3번째로 진행됐다.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다자녀 가정의 양육 비용 부담을 줄이고 지역사회 공동 육아 분위기 조성 등을 위해 추진됐다.

총 36개 기업·단체가 동참해 네 자녀 이상 65가정과 자매결연을 하게 됐으며, 이날 행사에는 6개 후원기업이 참석했다.

결연 기간은 1년이며, 36개 기업·단체의 후원금 7920만원은 (재)광양시사랑나눔복지재단에 지정 기탁된다. 복지재단에서는 결연가정에 양육지원비로 매월 10만원씩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체 대표로 참석한 (주)드림피아 이백구 회장은 "지속적으로 자매결연에 참여한 기업과 신규 기업 대표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과 기업이 상생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저출산 문제가 현실로 다가오는 시점에서 기업들이 함께 공동육아 분위기 조성에 선도역할을 해줘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우리 시가 앞장서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아이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 선도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순천시 추모공원 화장시설 외지인 사용료 인상

15세 이상 40만5000원→70만원

순천시가 다음 달부터 추모공원 화장시설에 대한 외지인(관외) 사용료를 인상하기로 했다.

외지인 사용료는 기존 15세 이상 40만5000원에서 70만원으로 오른다.

15세 미만과 개장 유골은 20만2000원에서 35만원으로 인상된다.

순천시민(관내) 사용료는 15세 이상 5만8000원·15세 미만 4만5000원으로 기존과 같다.

순천시립추모공원의 사용료 인상은 2013년 이후 10년 만이다.

최근 연료비와 전기요금 등 각종 운영 경비가 오르면서 인상을 결정했다. 사망자가 순천시에 전입 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등록 기준지가 순천시일 때 관외가 아닌 특례로 적용한다.

특례 사용료는 40만5000원이다.

순천시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사망한 사람 중에 화장조건이 되지 않아 먼 지역까지 원정 화장해야 했던 불편함을 줄이고자 관외 범위를 확대했다.

순천시 관계자는 "이번 화장시설 사용료 현실화로 운영 내실화와 함께 사용자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여 화장 장례문화 정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순천=김은종 기자 ejkim@

광양시, 시내버스 노선 개편·경영진단 착수

용역 착수 보고회

광양시가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운수업체 경영에 대한 재정검토를 위해 '시내버스 노선 개편 및 경영진단 용역'을 착수했다.

광양시에 따르면 착수보고회는 시청 상황실에서 정인화 광양시장과 최대원 광양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 서영배 광양시의원, 운수업체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보고회를 통해 용역에 대한 추진 방향과 추진계획 등이 논의됐다.

광양시는 2019년 시내버스 노선 개편 용역을 실시한 바 있다. 현행 노선은 용역 결과에 따라 2020년부터 개편된 시내버스 운행노선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그동안 접수됐던 노선에 대한 불편 사항과 새로운 대단위 수요를 반영·검토하고 기존 비합리적인 노선들을 수정·개편할 방침이다.

또 시내버스 운송업과 관련된 환경 여건이 점점 더 어려워져 운수업체의 재정적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운수업체의 경영진단을 통해 재무적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효율화 방안 마련에 나선다.

정인화 광양시장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은 공공서비스적 성격을 띠고 있는 만큼 이번 용역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하고 노선을 안정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광양=김대수 기자 kds@kwangju.co.kr

곡성형 일자리 기본계획 용역 착수…연말까지 수립

곡성군이 최근 '곡성형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고 연말까지 세울 일자리 기본계획 방향을 논의했다. 〈곡성군 제공〉

곡성군이 연말까지 '곡성형 일자리 기본계획'을 세워 지역 일자리 창출과 고용 활성화에 나선다.

곡성군은 최근 군청에서 '곡성형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열었다고 12일 밝혔다.

보고회에는 이귀동 부군수와 실과소장, 군 부의장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곡성형 일자리 기본계획을 위한 연구 용역은 중간 보고회, 최종 보고회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곡성군은 사전 점검을 벌이고, 일자리 기본계획 추진 실무위원회(태스크포스)를 구성·운영할 계획이다.

또 곡성군의 일자리 정책 현황을 살피고 다른 자치단체의 일자리 정책 사례를 검토한다. 기업 설문조사 등을 통해 고용주와 지역민 의견을 듣고, 전문가 자문을 거친 뒤 일자리 계획 추진 방향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이귀동 부군수는 "이번 곡성형 일자리 기본계획 수립은 향후 곡성군 일자리 정책을 밝힐 청사진"이라며 "일하기 좋은 곡성, 군민이 행복한 곡성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 민관이 협력해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곡성=박종태 기자 pjt@kwangju.co.kr

구례읍 주민자치센터에 최근 평생학습센터가 마련됐다. 주민들이 개소식을 열고 축하하고 있다.

고흥군, 농업인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경영비 1억3000만원 절감 효과"

고흥군의 농업인 경영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임대료 50% 감면 시책이 약 1억3000만원의 경영비 절감 효과를 냈다.

품목이나 농가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농기계, 비료, 농약 등이 농업경영비의 약 40%를 차지한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고가로 직접 구입이 부담되는 농기계나 사용시기가 한정적인 농기계를 농업인에게 임대함으로써 경영비 절감 혜택과 영농 편의를 제공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는 수요가 높은 농기계를 중심으로 영농시기에 맞춰 적기 임대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2019년 2817건이던 농기계 임대건수는 2022년에는 5418건으로 늘어났다.

고흥군은 현재 본소(풍양면)와 북부지소(과역면)에 농기계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군은 동남부 지역 농업인들의 농기계 임대 편의를 위해 올해 10월 '농기계임대사업소 동부지소(포두면)'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고흥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농가의 경영비 절감과 양질의 농업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임대사업소를 운영하고 있다"며 "오는 6월 말부터 임대 문자 안내, 스마트폰 예약 등 농가 편의를 위한 서비스를 보다 확대해 많은 농업인이 농기계를 편하게 임대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흥=주각중 기자 gjju@kwangju.co.kr

구례군, 간전면 등 3곳 평생학습센터 문 열어

구례군 구례읍, 문척면, 간전면 3곳에 평생학습센터가 최근 문을 열었다.

구례군은 지난 3월 교육부로부터 '평생학습 도시'로 지정돼 평생학습센터 개소를 추진해왔다.

이번에 문을 연 센터는 주민 수요에 따라 '맞춤형 평생학습'을 운영할 계획이다.

구례읍 '민화 그리기', 문척면 '제과제빵', 간전면 '웃음 치료' 등이 대표적이다.

구례군은 평생학습 도시를 활성화에 평생학습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마을 공동체 소통을 강화하는 등 지방소멸 대응 방안으로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김순호 구례군수는 "평생학습 도시의 목적은 주민 누구나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환경을 조성해 군민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이라며 "우리 군민들이 더욱 활력 있고 행복한 삶을 누리도록 다양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개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